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자) 사순 제4주일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자) 사순 제4주일 (2023. 3. 19.)

* 오늘 전례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전례에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기회를 가집니다. 입당송에 나오는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라는 성경 말씀에 그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며 주님 수난의 길에 기꺼이 함께하려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사순 시기에 요구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합시다.

* 말씀의 초대

• 제1독서(사무엘기 상권 16,1-7.10-13L):

그 무렵 1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 보내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 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이 6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부음받은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7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10 이사가 아들 일곱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11 사무엘이 이사에게 “아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는 “막내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오.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12 그래서 이사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볼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13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 제2독서(사도바오로 에페소서 5,8-14):

형제 여러분, 8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9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10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11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12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13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14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 복음(요한복음 9,1.6-9.13-17.34-38):

그때에 1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6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7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8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 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9 어떤 이들은 “그 사람ियो.”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यो.”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13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14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날은 안식일이였다.

15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 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6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17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

니다.”

34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 쫓아 버렸다.

35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만나시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36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3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38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하여 오묘하게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그리스도인들이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열렬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며, 하느님 나라의 행복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소서.
2.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의로우신 주님, 저희 나라를 굽어살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정의를 올바로 깨닫고, 생활 안에서 실천하며, 공정

한 사회에서 참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3.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찾아 기쁘고 보람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작은 교회가 되어, 이웃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 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당 : 115 (수난 기약 다다르니)

봉헌 : 217 (정성어린 우리 제물)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성체 :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170 (자애로운 예수)

파견 : 123 (십자가 지고 가시는)

공지 사항

♣ 사순 시기 전례(기도) 및 의무

- 신앙의 신비여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오라토리오
- 금육제 : 14세 이상, 모든 금요일
- 판공성사 : 사순 시기 매 주일 미사 전
- 사순 시기 단식과 금육, 십자가의 길 기도와 절제의 생활로 부활의 은총을 잘 준비하도록 합니다.

♣ 26일 미사후 주일학교 십자가의 길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미사후 성모회의 있습니다.

♣ 2구역 야외 구역모임

시간 : 3월 25일 토요일 12시(예정)

장소 : 베르가모 성지 내용 : 십자가의 길

♣ 봉사자

	오늘 주일(19일)	다음 주일(26일)
제1독서	변의용 베네딕토	강한 프란체스코
제2독서	구희선 스텔라	박수정 클라라
복사	엄채운 엘리사벳 / 변가인 헬레나	이가은 마리아판체아 / 강윤이 스텔라
계단·화장실	변의용 베네딕토	강한 프란체스코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195.08 • 교무금 € 0.-